



친선골프대회 참가기

작은 추억이 우리 인생의 빛나는 보석

글. 신홍래(서울새신라RC)
소설가/지구 총재월신 편집위원장



골프는 긍정의 스포츠다. 한 번의 호타가 열 번의 실수를 누르고, 날씨가 변덕을 부려도 좋은 점부터 얘기하는 게 골프다. 흐리면 해가 안 나서 괜찮고, 빗방울이 들으면 많이 쏟아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한다. 긍정의 힘이 무한대로 작동하는 시간이다.

대회가 열린 날, 포항 지진에 입시한파까지 겹치는데다가 하늘은 첫눈이라도 뿌릴 듯 잿빛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점심 후 스타트 하우스로 내려서자 눈송이가 점점이 날려 첫눈을 맞는가 싶었는데, 단체사진을 찍으며 ‘파이팅’ 한번 외치고 나니 눈발이 금세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오호, 이게 긍정의 힘이고 열기라는 것인가.

이번 대회는 한국 로타리 창립 90주년, 세계 소아마비

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여서 그 의미가 각별했다. 우리나라 로타리가 아흔 살이라니 수백 년 큰 나무를 마주한 기분이다. 더구나 그 시초가 경성로타리(지금의 서울로타리클럽)에서 시작된 것이니 우리 3650지구가 바로 그 주인공이고, 회원 한 분 한 분이 아흔 겹 나이에 한몫씩 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기쁜 날, 너나없이 바쁜 11월에 하루 시간을 내서 대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봉사’이자 ‘기부’가 아닐 수 없다. 바쁜 일을 뒤로 미루고 나오신 분들이 다 그런 마음이 아닐까. 마음 넓은 분들을 마주 보고 하루를 같이 보낸다는 것이 가슴에 불 하나 밝힌 것처럼 따스하다.



마운틴 코스 1번홀. 해발 260미터쯤 된다더니 역시 페어웨이가 좁아 보였다. 동반자 1번, 2번의 볼이 오른쪽 계곡으로 연속 날아갔다. 푸른솔컨트리에선 오비 없이 다 헤저드란다. 내심 불안했지만 나를 믿고 티샷을 날렸다. 캐디가 반가운 듯 소리쳤다. “굿샷!” 이래저래 운수 좋은 날.

하지만 어느 쉬운 마운틴 코스가 있던가. 청룡열차가 철커덕철커덕 기어바퀴에 물려 꼭대기로 올라가듯 한 홀한 홀 산을 오르는데 제일 높은 곳이 해발 500미터가 넘는다고 했다. 러프 그트머리에 서면 발밑이 아찔했다. 한 달 내내 일요일 없이 일한 여파인지, 찬 날씨에 고도가 높아서인지 코피가 터졌다. 한쪽 코를 휴지로 막은 채 치는데 볼은 땅으로 가고 카트는 끝없이 산을 올랐다. 동반자들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신도 눈물 나는 법”이라며 의기양양. 남의 실수가 내 행복이라는 게 골프 삼락의 첫 번째라지 않던가. 참다못해 캐디에게 물었다.

“아가씨, 우리 언제 내려가요?”

대회 다음날, 동창생이 스티브 잡스가 병상에 누워 남겼다는 글을 보내왔다.

“평생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내가 가져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침전된 추억뿐(only the memories precipitated by love)”이라며 “가족을 위한 사랑, 부부 사랑, 그리고 친구들을 향한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잘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끝을 맺고 있다.

인생은 작고 사소한 추억들이 모여 아름다운 것이다. 특히 내가 기억하는 추억보다 내 옆의 친구나 내 인생의 동반자들이 기억해주는 추억이 더욱 빛나는 보석이다. 수필가 피천득 선생님은 “예전을 추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생애가 찬란하였다 하더라도 감추어둔 보물의 세목(細目)과 장소(場所)를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고 했다.

우리가 로타리로 인연을 맺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만드는 추억의 조각들, 이것이 우리들의 보물이다. 로타리 23년간 개참(皆參) 하고, 이러한 친선 자선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사랑밖엔 난 몰라”라는 노랫말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로타리가 아니다.

현지 진행을 맡아주신 이종원 전 총재, 대회 준비로 애쓰신 염성철 위원장과 최진욱 사무총장, 이분들의 노고도 추억 상자에 담아둘 일이다.